

“추석 맞아 어려운 이웃 돌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의견 나뉨

전북도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황현 의장과 김대중·김영배·최영규 의원 및 사무처 직원 등 30여명은 27일 익산 북부시장에서 유학선 상인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점포 확대에 따른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미리 구입한 은누리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 구입과 전통시장 이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가정복지시설인 익산 성애모자원을 찾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생활용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황현 의장은 “올 여름 폭염과 폭우로 채소류의 가격이 부진해 가격이 폭등하고 좀처럼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전통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께서 제수용품을 준비할 때 값싸고 품질 좋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성애모자원을 찾아 “유례없이 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이웃



전북도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은 나눔의 손길이 꼭 끊겨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

들도 돌보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대 재직 동암동문회, 1000만원 기탁

전북대학교 개교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발전기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대학에 재직 중인 동암교교 선·후배들이 기탁 대열에 동참했다.

동암교 졸업 교수·직원 모인인 전북대 동암동문회(회장 정두영)가 개교 70주년 축하의 의미를 담아 1천만 원의 기금을 기탁한 것.

선배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는 이들은 올해 대학 개교 70주년을 맞아 대학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고 의기투합 했고 기금 조성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들은 무엇보다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기금을 학생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호 총장은 지난 19일 이들을 총장실로 초청, 기탁식을 열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목요일(2)
등록번호 전북 74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출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5-4113	중앙지사 010-93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산지사 010-6789-0338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주지사 010-665-9355	광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388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5-4182	무주지사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선관위 공명이 사랑나눔회, 도내 불우이웃 성금 전달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공명이 사랑나눔회(회장 신을재)’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불우이웃 30세대 및 시설 2곳에 총 330만원의 성금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공명이 사랑나눔회는 2007년도에 결성된 이래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이 심시일만 모은 따뜻한 성금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11년째 전달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배식봉사, 치매 노인과의 소풍나들이, 사랑의 연탄 나르기 등 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보훈가족에게는 힐링멘토(Healing-Mentor)로서 지속적인 위문과 격려를 실시하고 있다.

공명이 사랑나눔회 신을재 회장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누고 찾아가는 봉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진안군 재향군인회 기념식 가져

진안군 재향군인회(회장 김택)는 27일 제65회 재향군인회날을 맞이하여 이항로 군수, 박명석 군의장, 관내 기관단체장, 안보단체, 회원, 주민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화예식장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북한 핵 미사일 도발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안보감사 초청 안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단체인 향군회원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연이은 북한 핵 미사일도발을 규탄했다.

특히 회원들은 결의 다짐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대열에 우리 모두 함께하여 북한 기정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철저한 대북압박에 정력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김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향군은 국가안보의 주역으로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국가안보와 국가발전 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익산시의회, 추석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익산시의회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둔 27일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의회는 이날 오전 익산시 덕가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청록원과 신용동 소재 원광효도마을을 차례로 방문하여 쌀과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뜻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덕담과 함께 종사자들의 불편사항도 청취하는 등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오후에는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 제수용품과 생활용품 등 추석맞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상인들을 위로 격려했다. /익산=장왕림 기자

부안군 주산면 새마을지도자회, 공동묘지 정비작업 펼쳐

부안군 주산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김기중)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새마을지도자 14명이 참석해 면내 공동묘지 4개소 분묘 3,040여 기의 분봉을 정비하고, 주변의 잡초 및 잡목을 제거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작업을 펼쳤다.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은 해마다 가족이나 친지 등 후손이 없어 돌보지 못하는 무연고 분묘의 잡목과 덩굴류 제거 및 벌초를 통해 훈훈한 고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앞장서고 있다.

주산면 새마을지도자회의 벌초봉사는 8년 동안 이어졌으며, 직접 재배한 배추로 김장을 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화합을 하려고 앞장서고 있다. /부안=이육수 기자

고창경찰서, 치매어르신·자살기도자 인명구조 활동 나서

고창경찰서(서장 박현수)에서는 잇따른 자살기도자와 치매노일 실종(가출)을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지난 25일 고창군 공음면 소재에서 치매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여청수사팀, 112타격대 등 총 60여명의 인력을 동원, CCTV수사 및 헬기과 집주변 일대 수색 등을 해 인근 야산 및 쉼터에 있는 실종자를 발견했고, 같은 날 광주청에서 공조요청 받은 자살기도자 관련 신고 역시 일대 순찰근무 중 인적이 없는 도로변 가장자리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기억해 둔 직원의 기지로 지령 즉시 현장에 진출, 신속히 요구조자를 발견하여 모두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

또한, 지난 22일에는 회사일로 고민하며 야산 차 속에서 유서를 쓰고 자살 직전에 있던 50대 남성을 발견하고 설득하여 가족에게 인계했다. /고창=김명식 기자

완산경찰서, 범인검거 유공자 민간인 감사장 전달

완산경찰서는 27일 오전 서정실에서 범인검거 유공 민간인 채모(45)씨와 전모(20)씨에게 감사장 및 포상금을 전달했다.



채씨와 전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19분께 전주시 완산구 전동의 한 센터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질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의 흉기를 빼앗고 제압해 현장에서 검거 후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당시에는 범인이 칼을 가지고 있어 빨리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칼을 빼앗고, 붙잡고 있었는데 몇 분 만에 경찰관이 오고 상황이 끝나고 나니 그제서야 실감이 나서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강홍수 완산서장은 “범인이 칼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검거해 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채씨와 전씨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추석과 함께하는

2017 임실N 치즈축제

웃어봐요! 치즈~ 행복 쪽~^^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추석	5	6	7
8	9	10	11	12	13	14

주요 프로그램

천만송이 국화전시, 전국어린이 요리경연대회, 제2회 전국어린이치즈창작동요대회, 전국 스타셰프 챌린지(최현석셰프), 국가대표"왕"치즈피자, 치즈나라 치즈범벅 모자이크, 치즈떡볶이 나눔행사, 치즈 및 낙농체험, 국내·외 치즈전시관, 임실N치즈피자 등 다양한 치즈음식

주최 임실군 주관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www.imsilfestival.com 063. 643. 3900

2017 축제 보조금지원